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김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이호철 작가의

‘판문점’이라는 단편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6·25동란 그리고 그로 인한

분단의 현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단모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민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정신적 상흔을 남겨주었고

휴전회담이 성사됨으로써

종전이 아니죠. 휴전입니다.

남북분단의 상태가 고착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벌써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문단의 경우에도 광복 후에

남쪽에서 활동하던 좌파 문인들이

전쟁을 전후로 해서  
대거 월북하거나

또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문인들이  
납북되기도 했고

북한 사회체제에 동조할 수 없었던  
문인들은 월남을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분단, 또 문단의 분단이란 것이  
이렇게 생겨났죠.

그러니까 남북의 분단이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한반도의 남북으로 진주한

미소 양군의 군사적  
편의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죠.

분단이란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기 힘을 갖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고 있고

그 결과 그 이후의 미소 양군의

편의주의 때문에 분단되었다고 하면

일본과 세계열강의 책임도

여기 함께 있는 것이죠.

논리는 그렇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체제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되고

사회와 문화 전체가 폐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상

문인들 또는 문학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호철의 문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출생해서  
인민군으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월남해서 부산 부두에서  
노동자로도 일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황순원 선생의 추천으로

1955년입니다.

‘문학예술’ 이라는 문예지에

‘탈향’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그 이후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탈향’ ‘나상’ 이런 초기작들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생생하게 그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이라는 단편에  
등장하는 ‘진수’나 또 ‘북한 여기자’

이들의 이야기는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을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회담을 통해서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판문점에 나타나는  
남북분단 문제나

또 이 회담을 취재하는  
진수라는 주인공인 기자

형과 형수에게 얽혀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소시민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남북분단 문제, 소시민의 삶이란 것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호철의 삶 전반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호철은

남북분단 문제나

남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시민성에 관해서

일생을 두고 작가로서의 관심을

집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호철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각각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남과 북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 전후 현실을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 좌와 우에

어느 한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작가의 시각 확보는

1920년대에 전후문학 작가로서

이호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창섭, 장용학 같은 작가가  
전후의 시대적 상황이 의미가 없고

또 피폐한 인간실존에 주목하면서  
가치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형수 같은 각자는  
향토적 공간으로 물러서서

자기도취적인 리리시즘을 보여주었는데

이호철은 이와 같은 현실의  
객관적 평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세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의 얘기입니다만  
이호철이란 작가가

지면에 글을 쓰거나  
또는 방송에서 말을 하기로

늘 이와 같은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차후 세스코처럼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남한이  
북한을 감당할 수가 없다

북한이 중국의 등소평과 같이  
점진적인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북한의 개혁과 남한이  
상호 조응함으로써

민족문제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풀려야 한다.

이것은 초기 이호철의 세계 속에서  
보여주던 객관적 균형감각과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 작가가 가졌던  
경각심이라고 할까

또 북한 출신으로서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가치 있는 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겠죠.

이호철의 문학작품은 궁극적으로

분단 문제와 떨어져서  
형성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만큼 이 작가에게 있어서  
역사의식이란 것은

6·25동란과 관련된

우리 민족의 운명론적 상황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철 소설의 주제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분단과 이산의 체험을 형상화하고

그것의 극복의 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향’ ‘나상’

‘오돌할멈’ ‘만조’ ‘판문점’

이런 작품들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소시민 문제, 또는 사회현실과

풍자 및 비판을 보여주는

소설 군들이 있습니다.

‘닿아지는 살들’ ‘소시민’

‘서울은 만원이다’ ‘울 안과 울 밖’

‘큰 산’ ‘이단자’

이런 작품들은 모두 다

그와 같은 제2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입니다.

이호철에 대한 평가는

문학의 핵심을

무엇으로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대체로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단의식의 극복에 관한

그래서 분단문제,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이호철의 작품세계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실향민이란 개인사,

월남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

인민군으로 징발되어 나가서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그의 체험으로써

소설 가운데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과 이산체험이란 것은

이호철 문학의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세대 풍자라는 측면인데,

분단 문제를 다루면서도

분단문제 그것 하나로 따로가 아니라  
이호철은 반드시

그것이 남한 사회의 세대문제와  
결부되도록 하고

이것을 풍자하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문학적,

연대 되어 있는, 연관성 있는  
문학관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호철 문학을 초기 문학과

후기 문학의 경향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생을 두고  
그가 추구했던 문학의 정신이란 것

나중에 작가로서 연배가 축적된 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에서도  
이 분단 문제에서

또는 소시민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원숙한 작가의 시선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호철이 남북분단에서부터,

남한의 사회현실에서부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포괄적이고

관조적인 세계관,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 작품 세계를

확장해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문점’이란 작품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판문점이란 것은 원

하나의 점포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회담 장소

DMZ 가운데에 있고

그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역사적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인데

‘판문점’은 우리 사회가

1960년대 이후에

용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기자가

만나서 대화하고

남북의 문제를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19 이후에 잠시 개방된

지적 자유로움의 분위기 속에서

이호철의 ‘판문점’ 같은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호철 선생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로는

‘판문점’ 을 썼는데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어요.

군사 쿠데타죠.

그런데 이 ‘판문점’ 을

썼다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시골에 도망가서 한동안 숨어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을 동등하게 놓고

남북의 기사를 동등하게 대화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 균형성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이와 똑같은 유사성을 가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최인훈이 쓴 ‘광장’ 이란 작품이죠.

‘광장’ 이란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이명준’ 이란 인물은

남과 북 어느 체제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3국 인도로 가는

‘타고르 호’ 라는 배 위에 있다가

실종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남과 북 중에 어디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범죄가 되어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19 이후에 잠깐 개방된

지적 자유로움의 분위기 속에서

이호철의 ‘관문점’ 이나 최인훈의 ‘광장’

같은 작품이 쓰였습니다.

이호철의 '판문점'은 단편이고  
최인훈은 '광장'은 장편입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 문학사의 이와 같은 작품들은  
잊힐 수 없는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측의 신문기자 진수가  
북측의 여기자와 대화하면서

남북을 균형 있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북측의 여기자가

남한 사회를 자본주의 병폐로  
가득한 세계로 비판하고,

진수는 북한 사회를  
폐쇄적인 사회로 비판합니다.

진수는 또 여기자의 사고와 행동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두 사람,

남북의 기자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는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착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여기자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지극히 간단한 데서 찾고자 합니다.

패배의식과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고

남북 교류를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의지, 사실은 의지죠.

그런데 이 의지가  
남북 간에 정말 있었겠느냐.

남한의 독재 정권은  
북한을 괴뢰정부라 불렀고

북한의 독재정부는  
남한을 또한 괴뢰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괴뢰라는 말은  
'허수아비 괴' , '허수아비 퇴' 괴뢰 정권

소련의 허수아비,

미국의 허수아비 정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남한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워딩을 개발했고

북한에서 김일성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워딩을 개발했습니다.

서로 다른 양측의 독재정권이  
상대방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

이것이 한반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사실은 의지에 있는 것인데

양쪽의 독재정권은  
상대방이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쪽 세력도 이를테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면  
문제해결이 쉽다는 얘기는

말로서는 정말 맞는 말인데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호철 작가는  
분단극복의 의지 측면에서

이것을 매우 냉철하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묘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화해의 목소리,

문제해결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판문점’이란 소설은 남북분단 문제

또 소설 속의 잠복해 있는 소시민 문제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드러낸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소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